



시민과 함께 만든 '순천 세계유산축전' 대성황

30만여명 방문...순천갯벌·선암사 치유 유산 전환점 순천만 풍어제·빨배림픽 등 유산 보존 공감대 형성

2024 순천 세계유산축전이 30만여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오천그린광장, 선암사, 순천갯벌에서 2024 순천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했다. 이번 축전은 오천그린광장을 세계유산 향유의 공간으로 표현해 시민들이 문화 향유와 더불어 세계유산의 가치를 누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순하게 선암사, 순천만습지라는 관광지로 인식되던 유산을 세계인이 함께 찾고 공유하는 유산으로 발전시킬 전환점으로 만들었다.

이번 축전의 가장 큰 이슈는 기념식이다. 기념식은 오천그린광장에서 순천이 가진 두 유산의 의미를 하나로 결합해 사람과 연결시켰다. 또한 유산 본연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 유산의 의미를 담았다. 축전의 출발은 시민들이 먼저 찾아가는 축전의 의미를 담아 시민 500여명과 함께 탐사르길을 걸었다. 또 순천갯벌을 중심으로 한 야간달빛기행, 새벽무진기행이 진행됐고, 선암사에서는 암사투어를 통해 선암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넓혔다.

새롭게 시도한 세계유산 순천갯벌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캠핑 프로그램도 많은 참여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관람 시간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됐던 순천만습지에서 참여자들이 별을 바라보고 갈대 소리를 들으며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이른 오전에는 무진교와 갈대밭 사이의 운무를 바라보며 일출을 기다리기도 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돋보였던 건 가족 단위의 적극 참여였다. 세계유산 종이집 만들기, 세계유산 스토리텔링 마술, 그림책 클래식, 유산놀이터 등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의 사전접수가 일찍 마감되고 현장에서도 참가 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세계유산의 대한 가치와 지속성을 위해 세계유산 포럼을 개최, 세계유산 등



재 이후 지켜야 할 가치의 유산에서 향유와 활용의 대상으로 발전 방안과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유산을 지키는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전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순천만 풍어제, 빨배림픽은 유산의 보존가치를 공감하고 화합하는 장이 됐다. 이 밖에도 세계유산 투어 완료자가 유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5년에도 세계유산의 가치, 순천의 가치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정기 기자

2024 순천 세계유산축전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오천그린광장에서 유산놀이터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모습(위)과 그린아일랜드에서 세계유산 종이집 만들기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순천시 제공>

광양시,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내달 시작

진상면 매터재 매장 가능성 높은 지점 선정

여순사건 유족들의 오랜 염원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오는 12월 광양 진상면 매터재에서 시작된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와 여순사건 광양유족회는 지난해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측에 진상면 매터재 발굴을 요청했다. 매터재는 여순사건 당시 광양시 여순사건 희생자뿐만 아니라 하동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등이 처형을 당한 장소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점부터 지금까지 지형이 변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여겨져 왔다.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검토 끝에 올해 9월 유해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최근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대상지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가 현장에서 진행됐다. <사진> 자문회의에는 최인선 순천대학교 교수,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문수현 구례여순사건연구회 연구원, 박선호 여순사건 광양유족회 회장, 최광철 광양유족회 사무국장,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관계자, 광양시 관계자, 마을주민 등이 참석했다. 회의결과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점들이 선정됐고, 해당 지점들을 중심으로 유해 발굴을 시작하기로 결정됐다. 여순사건 광양유족회 관계자는 "매

터재 유해 발굴로 여순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 사업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 경정도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탁영희 총무과장은 "희생자의 유골이 발견돼 70년 넘는 세월 동안 묻혀있던 참혹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희생자들이 유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염원한다"며 "앞으로도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양홍길 기자



'고흥 꿈꾸는 예술터' 개관 막바지 준비

16일 오픈...문화예술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고흥 꿈꾸는 예술터가 개관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4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 꿈꾸는 예술터(고흥읍 흥양길 20)'는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 감수성 향상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 주민의 문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유희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이다. 1층 '예술정원 그림 책방'에서는 고흥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보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목공·공예 작업이 가능한 '손작업장'이 마련돼 있다. /고흥=최봉환 기자

2층 '다목적실'에서는 몸의 감각에 집중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3층 '미디어 아트 드로잉실'에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체험이, '소리 작업실'에서는 음악 작업을, '예술과 기술실'에서는 사진, 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교육이 제공된다. 이번 개관식은 오는 16일 오후 3시 꿈꾸는 예술터 광장에서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참여자와 함께 즐기는 전시·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흥=최봉환 기자

구례군 '아름다운 민간정원' 전국 최다 선정

쌍산재·천개의 향나무 숲·반야원 등 3곳

구례군은 4일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구례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서류평가, 2차 전문가

현장 심사 및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구례 민간정원은 ▲ 300년 고택과 정원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쌍산재' ▲ 1천 그루의 향나무길과 목서, 매화의 향기가 가득한 '천개의 향나무 숲' ▲ 오랜 세월을 품은 플라타너스와 소나무가 돋보이는 '반

야원'이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의 민간정원들이 모두 선정되고, 최근 지리산정원이 전남도 제3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구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여수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내달까지 온라인·방문 신청

여수시는 4일 "이달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체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0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3천 357건 8천600여만원이며, 이 중 88.8%(2천 992건)이 5만원 이하이다. 지방세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며, 납세자의 착오 신고, 법령 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했을 때 발생한다. 시에서는 기간 중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우편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독려해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문자(061-659-3530) 또는 본

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금 청구 기간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마땅히 납세자에게 귀속돼야 할 환급금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세정팀(061-659-3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토지 특성 재확인...29일까지

담양군은 4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었던 3천148필지에 대해 7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가 국토교통부에서 공

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열람·의견제출 과정을 거친 후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해영 민원과 부동산심장은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군, 콩 종합처리장 준공

동면 농공단지 내 조성...농가소득 향상 기대

화순군은 4일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사업 다각화 부분)에 선정돼 천운농협에 지원한 총사업비 35억원(보조 80%, 자담 20%)의 콩 종합처리장이 최근 준공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운농협은 전남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내 ▲선별 ▲저장 ▲포장 ▲유통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콩 종합처리장을 준공했다. 종합처리장은 선별장 480㎡(정선기, 석발기, 선별기, 건식세척기, 색채선별기, 탈피기, 소포장기 등), 일반창고 330㎡, 저온저장고 330㎡로 구성됐으며, 광

주·전남 지역의 콩 생산 물량을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농민의 편익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순군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콩에 대해 ha당 50만원, kg당 1천원의 균비를 지원한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콩을 생산부터 유통까지 지원해 부자농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화순군이 최근 동면 농공단지 일원에서 콩 종합처리장 준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준공을 기념하며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